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향유된 시조의 양상과 특징

박 지 애 *

〈국문초록〉

이 글은 20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대중매체 중 유성기음반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통되고 향유된 가곡창과 시조창의 실상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된 가곡 및 시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곡과 시조 유성기음반은 취입 초기부터 ‘고급문화의 향유’를 강조함으로써, 잡가 위주로 취입되던 당시의 전통노래 음반과의 변별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유성기음반 취입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가곡창 위주로 음반 취입이 진행되었으며, 유성기음반이 대중화되는 1930년대 이후에는 가곡창보다는 시조창 위주로 음반이 취입되었다.

다음으로 라디오로 방송된 가곡 및 시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디오방송에서는 가곡 방송이 시조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둘째, 가곡 방송은 가곡창만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송하였으며, 시조는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시조창만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당시 시조와 함께 방송된 노래 양식은 가창가사뿐만 아니라 긴잡가, 통속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셋째, 시조 방송은 연행자와 방송 곡목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라디오방송이 시작된 1926년부터 1932년까지는 19세기 연행문화의 연장에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1933년부터 1936년까지는 기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잡가 및 통속민요와 시조창을 묶어 방송 레퍼토리로 구성한 시기이다. 1937년 이후는 이왕직아악부, 향계 가객들의 방송 진출 등 기녀 집단 일변도로 구연되던 방송 환경은 다변화되는 시기이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BK 연구교수

가곡과 시조는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한 노래 향유와 전승이라는 달라진 매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파악된다. 빠른 악곡 위주의 음반 취입, 시조창과 잡가 및 통속민요를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라진 매체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가요와 기존의 노랫말을 더욱 통속적으로 변화시킨 잡가와와의 경쟁에서 가곡과 시조가 우위를 차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래 향유 환경의 변화 속에서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가곡과 시조 담당층은 오히려 전통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속적인 노래 양식들과 변별되고자 하였다. 이왕직악부의 음반 취입과 방송 참여, 지방 관객들의 진출, 남성 연행자들의 참여 등은 가곡과 시조의 향유문화를 다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속적인 노래와의 ‘격조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였다.

주제어 : 20세기 전반기, 대중매체, 시조, 가곡, 소통, 음악의 대중화, 유성기음반, 라디오방송

1. 근대 대중매체의 등장과 노래 향유방식의 변화

19세기까지만 해도 신분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은 나뉘어 있었다. 물론 17·18세기에 형성된 여향의 시정문화로 인해 상·하층의 이원적 문화체계에 균열이 생긴 후, 19세기 후반에 도시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¹⁾ 하지만 여전히 신분에 따라 문화 접근과 향유가 차별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오면 근대식 매체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신분에 따른 차별적 음악 향유의 토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물론 신분 대신 경제력에 의해 문화 접근과 향유가 차별화되

1) 김학성, 『잡가의 생성기반과 장르 정체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250~264쪽 참고.

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문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중의 것이 되었다.²⁾

근대식 극장 공연을 통해 쇠고기(중급) 한 근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면 당대 최고 명창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협률사 공연 입장료 ³⁾		창부가채(唱夫歌價) ⁴⁾	
1층	1원	1등 창부	20원
2층	60전	2등 창부	14원
3층	40전	3등 창부	10원
4층	20전		

1920년대 말부터는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들 또한 처음에는 고가의 물품으로 '상층문화의 표상'이었지만, 점차 대중화되어 중산층 정도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이 되었다. 라디오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식당이나 이발소에서 갖추어놓는 흔한 물건이 되었으며,⁵⁾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를 틀어놓는 상점 때문에 거리는 시끄러워 규제가 필요한 지경이었다.⁶⁾

이렇게 음악 향유의 환경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대중들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확대되었다.

2) 20세기 초 근대적 대중매체의 등장과 노래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지애의 논의 참고. (박지애, 『근대 대중매체와 잡가』, 역락, 2015, 11~31쪽 참고)

3) 『대한매일신보』 1906. 3. 16.

4) 창부의 소리 값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황성신문』 1902. 10. 31.)

5) 경성탐보군, 『商界閑話』, 『별건곤』, 1927. 3.

6) 『동아일보』 1937. 8. 12.

구주대전 까지도 음악을 드르라면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성기도 잊었으나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보면 꽤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드르라면 음악회에 가든지 좋은 영화관으로 가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라디오에 의하야 우리는 앉어서도 여러 만 리 밖에 음악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진보야말로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음악도 생산관계를 따라 발달하는 것이었습니다.⁷⁾

인용문에서와 같이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를 통해 굳이 공연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문화에서 소외된 지방 거주자도 공간적 한계를 초월해 음악 향유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근대적 대중매체를 통해 음악의 대중화가 실현되었다.

이 글은 근대적 대중매체를 활용한 노래의 소통과 향유가 본격화된 20세기 이후 가곡과 시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소통되고 향유되었는지 그 실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노래 소통과 향유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20세기 이후의 전통 노래 양식의 지속과 변용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잡가’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⁸⁾ 잡가는 장르 내·외적인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근대적 대중매체와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근대적 대중매체를 통해 향유된 잡가의 실상 및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반면, 20세기 이후 근대적 대중매체를 통해 향유된 가곡과 시조, 가사 등 여타의 전통 노래 양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⁹⁾

7) 「토키의 소리와 라디오의 소리(상)-음악의 역사」, 『동아일보』 1933. 11. 1

8) 박지애,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향유방식과 변모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장유정, 「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 양상 고찰」,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최현재,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변모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학회, 2007.

9)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문현, 「고음반에 전하는 가곡, 가사, 시조의 음향자료

이 글은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되고 라디오로 방송된 가곡과 시조의 실상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하고,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가곡과 시조 향유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유성기음반으로 향유된 가곡과 시조의 양상을 살필 것이며, 3장에서는 라디오로 방송된 가곡과 시조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세기 전반기 대중매체를 통해 소통되고 향유된 여타의 전통 시가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가곡과 시조 음반 및 방송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2. 유성기음반에서의 가곡 및 시조 향유의 양상과 특징

1877년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후 불과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성기를 통한 음반 취입이 시작되었다. 유성기음반이 도입됨으로써 전기 테크놀로지 장치를 이용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음악을 재생하고 감상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당시 신문은 명창은 사라질지라도 그가 남긴 명곡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유성기를 다행스러운 기계로 소개하고 있다.¹⁰⁾

1907년 대한악공 한인오와 관기 최홍매에 의해 최초의 상업 음반이 취입된 후,¹¹⁾ 1911년 경에는 신문 지면을 통해 본격적인 유성기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유성기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고가의 품목이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가격이 하락하고 전기녹음방식을 통해 음질

연구], 『한국음반학』 8, 한국고음반연구회, 1998; 고은지, 「경성방송국 프로그램에 기록된 20세기 '시조예술'의 연행 양상과 특징」,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박지애, 「20세기 전반기 라디오방송을 통한 십이가사의 소통과 향유」,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10) 「空前盛況의 讀者慰安 演奏會-日東 專屬樂歌 總出演」, 『매일신보』 1925. 9. 18.

11) 『만세보』 1907. 3. 19.

이 개선되고 대량 생산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유성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유성기가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오래 구비하는 품목이 되었으며, 상점이나 다방,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유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가곡과 시조 유성기음반은 취입 초기부터 ‘고급문화의 향유’를 강조함으로써, 잡가 위주로 취입되던 당시의 전통노래 음반과의 변별성을 강조하였다.

特別發賣音譜(九月一日부터發賣)

半島藝術의精華인正樂을半島唯一의正樂團이吹込한
界面,羽調 二枚(콜럼비아 40129 음반 광고)¹²⁾

高尚한 趣味, 幽閑한 氣分은 歌詞 時調에서 發見

伴奏는 當代一人者 金桂善氏의 저(大琴)

平調 女唱 지름 - 唱 朴月庭 女史(콜럼비아 40155 음반 광고)¹³⁾

朝鮮古典의歌謠中에 가장 淸澄幽雅한 旋律을 가진 詩調는 朝鮮民族의 胸襟에 알맞치 을너주는 것입니다. 레코-로드는 間或 女唱은 發賣된 것이 잇섯스나 男唱은 이번이 矯失입니다. 李文源氏는 美聲의 所有者로 숨은 名人입니다. 近日 女子의 詩朝라면 雜歌 목이 석기는 弊가 업지 안으나 李文源氏의 詩朝는 實로 高尚한 歌風이 詩朝의 眞髓를 알게 합니다.(후략)(콜럼비아 40390 음반 광고)¹⁴⁾

朝鮮舊歌謠로 가장 高尚한 詩朝는 옛날 文章들이 읊흔 아름다운 詩다. 더욱히 이 詩朝는 누구나 容易히 불를 수 없스니 만치 貴한 것이다. 女流 名唱 趙菊花嬢은 聖스러운 이 노래를 淒涼하게 불너 名盤을 만들었다(리갈 202음반 광고)¹⁵⁾

12) 『조선일보』 1930. 9. 1.

13) 『동아일보』 1931. 2. 22.

14) 『동아일보』 1933. 3. 4.

인용문은 가곡창과 시조창 음반 발매를 알리면서 신문에 게재된 광고이다. ‘반도 예술의 정화’, ‘고상한 취미’, ‘조선고전가요 중 가장 고상한 시조’ 등 가곡창과 시조창 광고의 주된 내용은 가곡과 시조가 전통 노래 양식 중 가장 격조가 높은 고상한 고급음악이라는 것이다. 격조 높은 고급음악인 가곡과 시조의 감상 자체가 고상한 취미 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질적 가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당시의 노래문화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별 짓게 한다. 또한 이러한 광고를 통해 고급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향유층 내에서도 일반적인 대중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광고는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즉 고급 음악과 시정의 음악계가 분리되어 있던 19세기까지의 음악 향유 환경은 20세기 이후 근대적 대중매체를 통한 음악 향유가 일반화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스스로 음악적인 교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며 대중과 자신을 분리하고자 했던 이들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가곡과 시조 음반이 소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곡창과 시조창 음반의 취입 현황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도록 하겠다. 가곡과 시조는 1910년대부터 음반으로 취입되기 시작하여 1945년 이전까지 70여 종의 음반이 제작되었다. 가곡 및 시조 음반의 연도별 취입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¹⁶⁾

15) 『동아일보』 1934. 7. 18.

16) 가곡 및 시조 음반의 현황은 『한국유성기음반』에 따랐다. 동일한 음반이 재발매된 경우는 제외하고 최초 음반 발매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가 곡			시 조		
연도	음반수	취입 내용	연도	음반수	취입 내용
1912	-	-	1912	3	가마귀지름
					창내고자
					푸른산중
1913	1	편/관산옹마	1913	1	시조/여창지름
1921	3	농/계락	1921	-	-
		우락/환계락			
		서울방아타령/우조 두거			
1925	5	여창 계락/편	1925	1	여창시조/여창시조
		남창 우조초수대엽/우조삼수대엽			
		화편/평양수심가			
		남창 계면삼수대엽/만굴			
		편/모시편			
1926	4	계락/언락	1926	1	평시조/사설시조
		두거/반엽			
		계면 초수대엽/언편			
		소용/반엽			
1927	-	-	1927	6	여창지름/남창지름
					평시조/평시조
					여창지름/여창지름
					여창지름/여창지름
					사설지름/사설지름
					평시조/양산도
1930	1	계면/우조	1930	-	-
1931	3	우락/환계락	1931	2	평시조/여창지름
		자진한닙/농			사설시조/남창지름
		황계사/화편			
1932	2	계락/화편	1932	2	춘면곡/평시조
		계락/편			평시조/여창지름
1933	-	-	1933	5	평시조/남창지름
					평시조/시낭음 등왕각서

					평시조/남창지름		
					푸른산중/자진배다락이		
					평시조/여창지름		
1934	2	우락/우락 환계락/환계락	1934	1	평시조/여창지름		
1935	4	계락/계락	1935	4	평시조/사설시조		
		편/편			권주가/여창지름		
		반엽/반엽			평시조/남창지름		
		편수대엽 화편/관산용마			관산용마/푸른산중		
1936	2	언락/편락	1936	4	평시조/남창지름		
		화편/평조회상			평시조/사설시조		
1937	-	-			1937	6	사설시조/각시조
							권주가/평시조
			평시조/사설시조				
			평시조/사설시조				
			평시조/곳거리시조				
평조/추심(사설시조)							
1938	-	-	1938	1	평시조/사설시조		
1940	-	-	1940	2	관산용마/남창지름		
					평시조/사설시조		
1940~ 1943	-	-	1940~ 1943	3	평시조/사설시조		
					평시조/사설시조		
					평시조/사설시조		
합계		26종	합계		42종		

위의 도표를 통해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가곡창 위주로 음반이 취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최초의 상업 음반이 취급되기는 하였지만, 유성기음반을 통한 노래 향유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1920년대 이후이다. 즉 전기 녹음방식을 통해 음질이 개선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1929년을 기점으로 유성기음반을 통한 노래 향유가 본격화된다.

유성기 취입 초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조창에 비해 가곡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취입되었다. 하지만 유성기음반이 대중화되는 1930년대 이후에는 가곡창보다는 시조창 위주로 음반이 취입되었다. 즉 가곡창 음반 26종 중 13종이 1926년 이전에 취입된 데 반해, 시조 음반은 193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42종 중 12종이 취입되는 데 그쳤다. 이렇듯 가곡창과 시조창이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되는 초기에는 시조창보다 가곡창을 취입하는 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이후의 가곡창 음반이 주로 ‘계락’, ‘화편’ 위주로 취입되었다면, 취입 초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편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즉 1920년대 중반까지의 가곡창 음반은 ‘농’, ‘우락’, ‘우조초수대엽’, ‘우조삼수대엽’, ‘계면삼수대엽’, ‘두기’ 등 다양한 종류의 악곡을 음반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30년대 이후에는 주로 ‘계락’, ‘화편’ 등이 취입되었다. 이를 통해 초기의 가곡창 음반은 대중적인 취향과 기호에 따라 음반을 발매하기보다는 다양한 가곡창을 음반화하는 데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의 가곡창 음반은 19세기 가곡창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성기음반이 본격적으로 노래 향유의 매체로 대중화되는 시기는 1930년대 이후이다. 1930년대 이후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된 가곡과 시조의 양상은 1920년대까지의 양상과는 구별된다. 1930년대 이후의 가곡과 시조 음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조창 음반이 활발하게 취입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시조창 음반이 가곡창 음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취입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성기음반이 지닌 매체로서의 한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의 유성기음반은 앞·뒷면을 합하여 6~7분의 재생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진 매체이다. 노래 향유의 매체로서 유성기음반이 지닌 이러한 근본적 한

계는 취입되는 노래 양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연주시간이 짧은 화편과 시조 위주로 음반이 취입된 것은 음반의 매체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성기음반은 라디오방송과는 달리 자본의 영역에 편입되어 수용자들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매체로서, 향유층의 취향과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동일한 시기 노래 향유의 또 다른 매체였던 라디오방송과 유성기음반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매체적 차이이기도 하다. 즉 라디오방송이 국가 주도의 미디어로서 관영성을 지닌다면, 유성기음반은 소비자의 개인적 취향이 구매로 이어지는 사적인 성격이 강한 매체이다. 유성기음반 취입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 이후 시조창 위주로 음반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음반의 향유층이 가곡창보다 시조창 음반을 선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된 가곡창과 시조창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유성기음반을 통해 향유된 가곡창과 시조창의 실상이 라디오방송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향유된 가곡과 시조의 실상을 살펴,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서의 가곡과 시조 향유 양상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당시 '노래로서의 시조'의 향유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라디오방송에서의 가곡 및 시조 향유의 양상과 특징

1925년 3월 일본의 정식 라디오방송인 도쿄방송국(JOAK)이 개국한 뒤 오사카와 나고야의 뒤를 이어 경성방송국(JODK)이 1927년 2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일본이 당시 일본과 조선을 통틀어 경성을 네 번째 방송국 개

국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성방송국을 단순히 정보의 제공과 소통이라는 방송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곳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즉 당시의 라디오방송은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한반도를 발판으로 중국까지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라디오방송은 철저하게 일제의 통제를 받는 국가 미디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일제의 정책을 대변하고 알리는 ‘보도’는 당시 라디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¹⁷⁾

그러나 라디오가 ‘보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대중이 라디오를 구입하고, 라디오 앞으로 모여 방송을 청취해야만 ‘보도’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을 방송 앞으로 모으기 위해 방송 초기부터 노래 방송은 라디오방송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었다. 즉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라디오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래 방송에 주력함으로써, 오히려 라디오를 통해 안정적인 노래 향유 환경이 구축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일본 현지의 방송 시간대를 그대로 옮겨 방송을 진행하던 개국 초기에는 주로 뉴스와 교양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1929년 방송 2주년에 맞추어 방송시간을 개편하면서 일본 현지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하지만 현지의 방송이 종료되는 매일 오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가 방송의 황금시간대에 해당했고, 이 시간대에 음악 위주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¹⁸⁾ 1933년 이중방송¹⁹⁾이 실시된 이후에는 방송 시

17) 경성방송국의 라디오편성 지침은 “보도, 교양, 위안”이었다.(이서구, 『放送夜話,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귀에까지 가는가』, 『삼천리』 1938. 10. 1.)

18) 『JODK에서 방송시간 대개혁-디방팬을 만히 돌보와, 밤은 11시까지』, 『매일신보』 1929. 2. 27.

19) 초기의 방송은 단일 채널 혼합방송이었으며, 1933년 4월 26일 조선어 제2방송이 시작되어 이중방송이 실시되었다. 단일방송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일부

간대가 확대되면서 음악 방송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당시의 음악 방송은 서구의 음악을 소개하거나 유행가 등 양악을 방송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전통 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으며, 전통 음악 중에서도 잡가 위주로 편성되었다.²¹⁾ 그러나 잡가에 비해 방송 횟수가 적긴 하지만 가곡과 시조 또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편성되었다. 가곡과 시조의 연도별 방송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²²⁾

연도	가곡	시조
	방송 횟수	방송 횟수
1926	1	3
1927	14	5
1928	24	0
1929	18	10
1930	8	8
1931	11	11
1932	11	19
1933	28	36
1934	43	97

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방송을 실시했다면, 이중방송이 시작된 이후 제2방송에서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산업강좌, 부인강좌, 아동강좌 등과 함께 오락물을 주로 편성하였다. (『동아일보』 1933. 4. 22. 참고.)

20) 이중방송 실시 이후 제2방송에서는 농사방법 등에 대한 산업강좌와 계몽 및 문맹 퇴치를 위한 부인 계몽 강좌, 아동강좌 및 종교 강연 등의 교양강좌와 함께 일방적 오락물을 하루에 3~4종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 지침을 정했다. (『동아일보』 1933. 4. 22.)

21) 1926년부터 1945년 8월 이전까지 잡가는 모두 12,308회 방송되었다. 이 숫자는 1회 방송에서 여러 곡의 잡가가 방송될 경우, 개별 노래 한 곡마다 모두 더하여 합산된 수치이다. (박지애, 앞의 책, 2015, 137쪽.)

22) 이 자료는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에 따른 것이며, 한 번에 방송된 가곡 및 시조 프로그램을 1회로 계산하였다.

1935	42	44
1936	50	35
1937	46	26
1938	38	18
1939	32	23
1940	26	24
1941	24	31
1942	16	9
1943	16	11
1944	8	7
1945	6	6
합 계	462	423

전체 방송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가곡 방송이 시조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34년 한 해 동안 시조가 97회 방송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곡 방송이 전 시기에 걸쳐 꾸준하게 방송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디오방송이 시작된 초기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가곡이 지속적으로 방송된 데 반해, 시조는 이중방송이 시작되는 1933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유성기음반이 시조창 위주로 취입된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매체가 지닌 매체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라디오방송의 편성 지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도, 교양, 위안'이었다. 즉 청취자들의 교양 제고는 당시 라디오방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당시의 라디오방송 편성 담당자들은 대중의 기호만을 고려하여 방송 레퍼토리를 정하지 않았다. 즉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어학 강좌나, 서양의 관현악을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이 라디오가 가진 '대중적 교양의 제고'라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의 라디오에서는 가곡창과 시조창을 비슷한 비중으로 방송하여 방송 청취자들이 지속적으로 가곡과 시조창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성기 음반 담당자들은 당시의 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시조창 위주로 음반을 취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성기음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행 시간이 자유로웠던 라디오방송 환경 또한 가곡창 방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곡 방송과 시조 방송은 횡수에서뿐만 아니라 30여 분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편성되는 노래 또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연도	가곡		시조	
	방송 횟수	함께 방송된 노래 목록	방송 횟수	함께 방송된 노래 목록
1926	1	춘면곡, 건곤가	3	수심가, 개성난봉가, 방아타령 공명가, 역금수심가
1927	14		5	춘면곡, 상사별곡, 관산마
1928	24		0	
1929	18		10	서도잡가, 남도단가, 가야금병창
1930	8	시조, 가사	8	황계사, 행군악, 춘면곡, 건곤가, 죽지사, 소춘향가, 백구사, 난봉가, 무녀가
1931	11		11	유산가, 적벽가, 건곤가, 선유가, 집장가, 평안가, 연가, 무녀가, 행군악, 춘면곡, 수양가
1932	11		19	춘면곡, 소춘향가, 선유가, 난봉가, 무녀가, 백구사, 수양가, 개성난봉가, 아리랑구조, 날느리아, 죽지사, 행군락, 방아타령, 범벅타령, 바위타령, 휘모리잡가, 뱃노래, 양류가
1933	28	상사별곡, 시조	36	죽지사, 황계사, 소춘향가, 유산가, 적벽가, 무녀가, 상사별곡, 행군악, 평안가, 바위타령, 도라지타령, 집장가, 양류가, 춘면곡, 백구사, 경아리랑, 방아타령, 도라지타령, 노랫가락, 길군악
1934	43	산염불, 개성난봉가, 노래가락, 창부타령	97	건곤가, 집장가, 형장가, 유산가, 적벽가, 수양가, 제비가, 소춘향가, 평안가, 박물가, 양류가, 달거리, 공명가, 노랫가락, 은실타령, 양류가, 긴아리랑, 난봉가, 야흥타령, 경북궁타령,

				어허청춘, 육자백이
1935	42	홍타령, 이팔청춘가, 신조아리랑	44	제비가, 달거리, 평양가, 집장가, 소춘향가, 박연폭포, 박물가, 선유가, 유산가, 적벽가, 매화타령, 이화타령, 경북궁타령, 박연폭포, 경사거리, 노랫가락, 짝타령, 공명가, 영변가, 창부타령, 수심가, 역금수심가, 개성난봉가, 널니리아
1936	50		35	영변가, 산엽불, 방아타령, 도라지타령, 청춘가, 소춘향가, 개타령, 달거리, 한강수타령, 방아타령, 양산도, 노랫가락, 유산가, 제비가, 놀양, 안산타령, 뒷산타령, 선유가, 수양가,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적벽가, 선유가, 집장가
1937	46	신민요(천리몽 외)	26	유산가, 제비가, 달거리, 집장가, 소춘향가, 제비가, 적벽가, 선유가, 짝타령,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간아리, 박연폭포, 수심가, 산엽불, 난봉가
1938	38		18	
1939	32		23	짝타령, 산엽불, 긴아리랑, 홍타령, 한강수타령, 베틀가, 널니리아, 관산용마, 수심가, 역금수심가, 영변가, 방아타령, 소춘향가, 매화타령, 경북궁타령
1940	26		24	상사별곡, 백구사, 죽지사
1941	24		31	길군악, 죽지사, 백구사, 춘면곡, 황계사, 선유가, 베틀가
1942	16		9	
1943	16		11	
1944	8		7	
1945	6		6	
합계	462		423	

위의 도표는 가곡창과 시조창이 방송될 때 함께 방송된 곡목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은 30여 분으로 편성되었다. 도표에서 함께 방송된 곡목을 적지 않은 연도는 가곡 혹은 시조만으로 편성되어 방송된 경우이다.

위에서 제시한 가곡과 시조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가곡 방송은 가곡창만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송하였으며, 시조는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시조창만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라디오방송 개국 당시부터 광복 이전까지 가곡 방송은 6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곡창만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였다. 이에 반해 시조 방송은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시조창만으로 방송이 편성되었으며, 시조 방송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1930년대 초·중반에는 여타의 노래 양식과 함께 방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²³⁾

둘째, 시조는 다양한 노래 양식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방송되었다. 당시 시조와 함께 방송된 노래 양식은 가창가사뿐만 아니라 긴잡가, 통속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세기 이후로 시조의 연행 현장에서 함께 향유된 가창가사와 긴잡가뿐만 아니라 서도잡가, 남도잡가, 경기잡가, 통속민요 등 20세기 이후 연행되던 대중적인 전통 노래 갈래가 모두 시조와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방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곡 방송은 전통적인 형태의 편가 방식을 유지하며, 19세기 후반 가곡사를 계승하였다.²⁴⁾ 반면 시조 방송은 주로 기생들이 연행자로 참여하면서 기생들의 주요 공연 종목이었던 잡가와 시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방송하였다.

하지만 시조 방송이 전 시기에 걸쳐 균질한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중 방송이 시작되고 라디오 방송이 대중화되는 1930년대 중반까지는 기생들을 중심으로 시조 방송이 진행되면서 잡가와 통속민요까지 하나의 레퍼토리로 묶어 연행하였다. 반면 1930년대 후반부터는 향계 가객들이 시조창 방송에 참여하고, 이왕직악악부가 본격적으로 방송에 관여하면서 서로 다른 악곡의 시조창을 엮어 시조창만으로 방송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²⁵⁾

23) 실제로 1939년의 시조 방송 중 3회만 시조와 다른 노래 양식이 함께 방송되었으며, 나머지 방송은 모두 시조창만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24) 고은지, 『경성방송국 프로그램에 기록된 20세기 '시조예술'의 연행 양상과 특징』,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173쪽.

25) 시조창 방송에서의 향계 가객 등장에 대해서는 고은지의 논의를 참고한다.(고은지, 같은

이상에서 논의한 연행자와 방송 곡목을 토대로 시조창 방송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라디오방송이 시작된 1926년부터 1932년까지는 기녀들을 중심으로 시조창 방송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기녀들이 시조창의 연행자로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주로 19세기 후반의 연행문화의 연장에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시조창은 주로 가창가사 및 긴잡가와 함께 방송되었다.

1933년부터 1936년까지는 이중방송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조선어 방송 환경이 구축되는 시기이다. 또한 라디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라디오를 통한 노래 소통과 향유가 일상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시조창 방송은 기녀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잡가 및 통속민요와 시조창을 묶어 방송 레퍼토리로 구성한 시기이다. 1937년 이후는 기녀 위주로 형성되어 있던 당시의 라디오방송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왕직악악부가 궁중음악을 연행하던 기존의 관습을 무너뜨리고 가곡 및 시조, 가사 연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왕직악악부뿐만 아니라 향계 가객들이 방송에 진출하면서 기녀 집단 일변도로 구연되던 방송 환경은 다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왕직악악부는 십이가사 방송에는 참여하였으나, 잡가 방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시조창은 잡가와 민요와는 분리되어 시조창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송되었으며,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조와 잡가, 시조와 민요의 격조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20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대중매체 중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소통되고 향유된 가곡창과 시조창의 실상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된 가곡 및 시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곡과 시조 유성기음반은 취입 초기부터 ‘고급문화의 향유’를 강조함으로써, 잡가 위주로 취입되던 당시의 전통노래 음반과의 변별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유성기음반 취입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가곡창 위주로 음반 취입이 진행되었으며, 유성기음반이 대중화되는 1930년대 이후에는 가곡창보다는 시조창 위주로 음반이 취입되었다.

다음으로 라디오로 방송된 가곡 및 시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디오방송에서는 가곡 방송이 시조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둘째, 가곡 방송은 가곡창만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송하였으며, 시조는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시조창만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당시 시조와 함께 방송된 노래 양식은 가창가사뿐만 아니라 긴잡가, 통속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셋째, 시조 방송은 연행자와 방송 곡목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라디오방송이 시작된 1926년부터 1932년까지는 19세기 연행문화의 연장에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1933년부터 1936년까지는 기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잡가 및 통속민요와 시조창을 묶어 방송 레퍼토리로 구성한 시기이다. 1937년 이후는 이왕직악악부, 향계 가객들의 방송 진출 등 기녀 집단 일변도로 구연되던 방송 환경은 다변화되는 시기이다.

근대적 대중매체는 음악의 대중화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문화적 감식안을

가진 소수에 의해 수준 높은 연행과 감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문화의 고급화’라고 특징짓는다면,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대중 추수적인 방면으로 연행문화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당시의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전통 노래 갈래가 잡가라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가곡과 시조는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한 노래 향유와 전승이라는 달라진 매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파악된다. 빠른 악곡 위주의 음반 취입, 시조창과 잡가 및 통속민요를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라진 매체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가요와 기존의 노랫말을 더욱 통속적으로 변화시킨 잡가와 경쟁에서 가곡과 시조가 우위를 차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래 향유 환경의 변화 속에서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가곡과 시조 담당층은 오히려 전통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속적인 노래 양식들과 변별되고자 하였다. 이왕직악부의 음반 취입과 방송 참여, 지방 가객들의 진출, 남성 연행자들의 참여 등은 가곡과 시조의 향유문화를 다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속적인 노래와의 ‘격조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별건곤』, 『삼천리』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만세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민속원, 2000.

『한국유성기음반』 1~5권, 수립문화총서, 2011.

2. 논문 및 저서

- 고은지, 『경성방송국 프로그램에 기록된 20세기 ‘시조예술’의 연행 양상과 특징』, 『한국 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 김학성, 『잡가의 생성기반과 장르 정체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문 현, 『고음반에 전하는 가곡, 가사, 시조의 음향자료 연구』, 『한국음반학』 8, 한국고음반연구회, 1998.;
- 박지애,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향유방식과 변모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20세기 전반기 라디오방송을 통한 십이가사의 소통과 향유』,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 _____, 『근대 대중매체와 잡가』, 역락, 2015.
- 장유정, 『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 양상 고찰』,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최현재,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변모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학회, 2007.

〈Abstract〉

Communication and Enjoyment of Sijo through the Mass Medi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Park, Jee-Ae

Music was made popular through the modern mass media. Nonetheless, if a period of high standard performances and appreciation by a minority of culture connoisseurs can be qualified with the expression “gentrification of culture”, then a period when anyone can access culture through the mass media can be qualified with the terms “popularization of culture” and in this period the reorganization of performance culture can only be driven by the public. In fact, the *Jabga*, which is a type of traditional song that received strong public adhesion by means of phonograph records and radio broadcasts at the time, stands as a typical example to it.

Gagok and *Sijo* up until the 1920s and even the 1930s are believed to engage actively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the new modes of music enjoyment and transmission. The Album recording of faster rhythm music and the inclusion of the *Sijo*, *Jabga*, and folk songs in one broadcast programme can be seen as reflecting such an effort. However, it can only be hard for the *Sijo* and *Gagok* to challenge the predominance of the *Jabga* which made its lyrics more popular and the new songs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new media environment. Until the 1930s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of music enjoyment, *Gagok* and *Sijo* performers rather sought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 existing popular song style by reproducing traditional forms. The album recording and broadcasting of *Lee Wangjik Aakbu*, the beginnings of local singers, the participation of male performers not only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the enjoyment culture of songs and sijo, but also made the ‘difference in standard’ with the popular songs even more salient.

Key words :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Mass media, *Sijo*, *Gagok*, Communication, Popularization of music, Phonograph, Radio broadcast

이 논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6년 1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